

소비심리 '뚝'... 화장품 아껴쓰고 옷 '리폼'

실물 경기 안 좋아 재활용 소비자 늘고 화장품·가방 등 판매액 3개월째 감소 모바일 쇼핑 비중 46.6%... 최고치 경신

'소매판매·온라인 쇼핑' 동향

4일 오후 광주주마아트스세계점 지하 옷 수선점은 휴일인데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고치기 위한 소비자로 북적였다. 과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지에서 영업하던 옷 수선점은 새옷을 줄이려는 손님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아예 옷을 유행에 맞게 고치는 '리폼'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다. 지역 소비자들 옷 소비를 줄이면서 광주시 옛 도심 총장로 일대와 금남로 지하상가 등지에는 옷 수선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성업 중이다. 옷값을 아낄 정도로 실물 경기가 나쁘다는 뜻이다.

이같은 현상은 의류구입 뿐만 아니라 화장품, 신발·가방 등에도 관련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격이 다소 저렴한 온라인쇼핑 판매액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매판매 및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의 화장품 소매판매액은 126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6% 떨어졌다.

화장품 판매액은 2012년 5.4%, 2013년 5.9%, 지난해 8.9% 증가했고 올해 1~5월만 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늘었다. 그러나 6월(-2.8%)을 기점으로 판매액이 세 달째 감소세를 보였다.

의복 판매액도 6월에 9.7% 감소한 데 이어 7, 8월에도 각각 0.8%, 2.8% 줄었다.

신발 및 가방 판매액은 6월(-14.7%), 7월(9.0%), 8월(-6.9%) 내리 감소했다.

반면에 지난 8월 음식료품 판매액은 0.4% 증가했고 가전제품·컴퓨터·통신기기(7.9%), 가구(9.3%) 판매도 늘었다.

전체 소매판매액은 지난 8월 29조399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 증가했다.

전체 소매판매에서 온라인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14.7%로 사상 최고치였던 7월의 15.8%보다 낮아졌다.

8월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2조190억원으로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의 46.6%를 차지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속 성장하고 있다.

8월에 모바일쇼핑 거래액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상품은 소프트웨어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6.3% 급증했다. 꽃(93.7%), 애완동물(84.8%), 화장품(83.2%)의 모바일 거래액도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8월에는 대형마트(-6.6%), 백화점(-5.0%), 승용차 및 연료소매(-2.8%) 판매액이 줄었지만 편의점(36.9%)과 슈퍼마켓(4.6%)은 증가했다. 홈쇼핑과 지마켓·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이 포함된 무점포 소매점의 판매액은 3.9% 늘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가을 패션의 완성' 부츠 할인
광주신세계백화점(대표이사 유신열)은 최근 '가을 패션의 완성' 아이템인 워커와 앵글 부츠를 선보이고 있다. 이 백화점은 오는 11일까지 20% 할인된 가격에 부츠 등을 판매한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10월 증시 전망

중국 경제 지표가 변수로 3분기 국내기업 실적 관건 연기금 배당투자에 주목을

10월 주식시장의 초점은 중국 매크로와 3분기 국내기업 실적, 그리고 배당투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상승의 첫 번째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는 외국인 수급 역시, 중국 경기판단과 실적 및 배당 변수에 대한 안도감에 연동해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국 변수에 있어 매크로 방향 선회 여부가 관건이다. 9월 FOMC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중국 경기변수에 따라 일회일부하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다. 결자해지 측면에선 10월 중 확인될 9월 경제 지표 개선과 연말까지 연이어 진행될 정부정책 이벤트가 중요하다.

부실 트로이카(공급과잉 산업, 지방정부 채무, 부동산 버블)에 대한 구조개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선 중장기 성장률에 대한 본질적 의구심을 단기 내 쉽사리 떨쳐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위안화 절하에 따른 수출 경쟁력 회복, 전진항 폭발사고 및 전승절 이벤트 관련 기저효과 등은 10월 경기 흐름 개선을 기대케 하는 긍정적 요인이다.

3분기 실적 변수 안정화 역시 중요하다. 올 상반기 KOSPI 랠리의 원천은 실적 바닥효과와 기대감이었다. 그러나 매크로 발발에 따른 내수경기 급랭,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 경기부진 심화, 경쟁국 통화절하 영향으로 인해 2015년 실적 개선 기대는 상당부분 희석되고 있다.

작년 9월 이후 2014년 순이익 컨센서스가 실적 확정 시점까지 추가 10% 하향조정이 나타난 점을 고려할 경우, 현 102조5000억원의 2015년 KOSPI 순이익 전망치는 92조7000억원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로는 개선세가 예상되지만 대내외 경기의 복합 부진과 누누이 반복되어왔던 실적 과잉추정 오류의 여지를 고려할 경우 이번 3분기 실적 시즌 역시 안심하기 어렵다.

한국은행 제조업 BSI(기업경기실사지수)로 재구성한 이익 추정치와 현 3분기 실적 컨센서스와의 괴리는 향후 예상되는 3분기 실적 불확실성의 크기로 이해할 수 있겠다. 시장 전반에 대한 공략에 앞서, 실적주 중심의 육식 가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대상은 가려본다면, 연초 및 전분기 대비 실적 컨센서스 상향조정이 진행 중인 화학, 음식료, 증권,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등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배당투자에 대한 적극적 관심 또한 10월 증시의 한 축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연기금리브롤의 중심에는 높은 유보율과 성장성 약화로 인해 시장의 배당주에 압력이 증가할 수 있는 핵심 수출 대형주와 전통적 배당주가 포진해 있는 상황이다. 연기금의 4분기 추가 매수 여력(국민연금 총 3조9000억원, 월 평균 1조3000억원 순매수 전망)과 주주권 행사 강화 기류를 고려해볼 경우, 연기금의 배당투자에 대한 관심은 10월에도 반복되어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환율세제(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 투자 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하는 제도) 도입과 배당소득세 개선 등 일련의 배당 친화적 정부정책 변화와 저금리 기초 장기화 환경은 배당주 투자를 지지하는 여전히 긍정적 요인이다. 또한, 시장 변동성 확대구간에서 배당주가 기타 종목군 대비 높은 초과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하기 어려운 변수일 것이다. 더불어 주요 배당주 인덱스가 신설되며 배당투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있고, 10월 배당지수 선물 상장을 통해 현물 선물 연계 배당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태현 상무
삼성증권 호남권역장



'도시락'·'메로나'·'고래밥' 해외에서 잘 나가네

사각 윙기면인 팔도 '도시락'은 현재 러시아에서 국민식품으로 통하며 연간 19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멜론맛 아이스크림인 빙그레 '메로나'는 북남미와 동남아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메로나 전체 매출의 4분의 1이 해외 시장에서 발생한다.

오리는 스낵인 '오리감자', '고래밥', '애감'은 해외 시장에서 연간 매출 1000억원 이상씩 달성하는 대표 해외파 제품이다.

겉 안에 시럽이 들어있는 롯데 '스파우트킴'은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낮지만 동종지역 블록타입 김 시장에서 70% 이상 점유율을 기록하는 히트상품이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해외로 건너가서 폭발적인 인

팔도 도시락 러서 국민식품

메로나 북남미서 100억 매출

고래밥 중국인 입맛 딱맞아

기를 누리는 식품들이 있다.

팔도는 맛을 현지화해 치킨, 버섯, 새우 등 다양한 맛을 출시한 것을 도시락의 성공 비결로 꼽고 있다. 모든 도시락 제품에 포크를 넣어 다른 제품과 차별화한 것도 특징이다.

도시락은 시베리아 횡단열차 이용자들이 많이 즐기고 있고 일부 구간에서는 열차 안에서 구입할 수 있다. 열차 여행객이 필수 준비품목으로 꼽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는 게 팔도 측 설명이다.

1992년 출시된 장수 아이스크림 메로나도 해외에서 성공한 케이스로 꼽힌다. 빙그레 전체 매출에서 내수와 수출 비중은 17대 1 정도이지만, 메로나는 내수와 수출 비중이 3대 1로 해외 시장의 비중이 크다. 지난해 기준 메로나 매출 가운데 내수는 330억원, 수출은 100억원 가량이었다.

고래밥의 중국어 제품명은 '물고기 가 많다'라는 뜻의 '하오푸어위'(好多魚), '고래밥 먹고 윙기를 내오'라는 마케팅을 펼치며 아이와 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진한 맛을 좋아하는 중국인의 입맛에 맞춰 토마토맛, 해초류맛, 바베류맛, 치킨맛으로 판매되고 있다.

○연합뉴스

감귤 1인당 14.3kg 소비 한국인 가장 많이 먹는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은 감귤로 집계됐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감귤 소비량은 14.3kg로 모든 과일을 통틀어 가장 많다.

감귤 범주에는 노지 온주와 하우스 온주 등 일반 감귤뿐 아니라 한라봉, 천혜향 등도 들어간다. 수입 오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감귤에 이어 사과(9.4kg), 포도(6.5kg), 배(5.5kg), 복숭아(4.2kg), 단감(3.7kg) 순으로 소비량이 많았다.

지난 1980년 4.2kg에 그쳤던 1인당 감귤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해 2007년 16kg으로 정점을 찍고서 2010년 이후에는 12~14kg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근조화환3단
슬픈날 마음을 나누며 조의,부의,근조

축화환3단
결혼, 고회, 전시회, 개업, 준공식 축화환

전국꽃배달서비스
전국농장직영

화환 ▶ 100,000
▶ 70,000
전국 ▶ 80,000

전국화환꽃·도매 362-1122, 010-5532-7799
팩스 942-6633 농협(김희진)175359-56-130180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시공면을 깨끗히 물청소하시고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방수! 직접 칠해 주세요

- 시외 -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비드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